

1/19, 싱가포르의 1/43에 불과하여 복권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산림환경기능은 온 국민이 수혜자이므로 복권이 갖는 불특정다수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복권발행의 취지와 일치하며, 「녹색복권」발행을 통해 산림의 환경기능을 무임 승차(freeride) 하려는 일반국민의 산림사업 투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 「녹색복권」은 연간 6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수익금은 100억~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녹색자금」은 일반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운 산림생태계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구조 활동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자금조성이 늘어나면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도시지역내 생활환경림 조성,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보안림·국립공원 등의 사유림의 보상 및 매입 등의 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불로장생 약초 가시오갈피 번식기술 개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번식이 어려운 희귀수목 가시오갈피 종자의 발아기간을 단축하고 발아율을 대폭 향상시키는 번식법을 개발하여 묘목의 대량생산이 가능케 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서부임업시험장에 따르면 가시오갈피는 노화방지, 체력증진, 성인병예방 등 인삼을 능가하는 약리 성분을 함유하여 약용 가치가 높은 반면, 이제까지는 번식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연구개발한 종자 번식기술에 의해 가시오갈피 우량묘목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시오갈피는 열매가 익어도 씨눈은 미숙 상태이고 종자발아(싹 틔우기) 소요기간도 2~3년으로 오래 걸리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가시오갈피의 번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번식방법과 효과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시오갈피 번식기술과 효과

개발된 번식기술		효 과
1단계	2단계	
종자를 습윤 처리하여 120일간 5℃ 유지 (미숙배→성숙배 유도)	종 자 를 Kinetin150ppm에 24시간 침적하여 60일간 5℃ 유지후 파종	· 종자발아기간 6개월로 단축 (자연발아 2~3년) · 발아율 59%로 향상 (자연발아 약3%)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시오갈피는 현재 일부 소수농가에